

열린신문

2026 vol. 376

SEPTEMBER 9월호



말씀 마주보기

죽은 사무엘은 정말 나타났는가?

성경은 신앙의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의 난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의 사울과 죽은 사무엘의 만남은 이러한 성경 해석의 필요성과 다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으로, 그 만남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은 성경이 왜 해석을 요구하는 책임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나타난 존재를 실제 사무엘로 보는 견해, 신접한 여인이 만들어낸 환영으로 이해하는 시각, 그리고 사탄이 사무엘을 가장해 나타난 거짓의 영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사무엘의 영으로 볼 경우, 접신을 엄격히 금하는 율법과 충돌하는 신학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듭 그 존재를 ‘사무엘’이라 지칭하고, 사울과 여인 역시 이를 분명히 인식하며, 특히 찢어진 ‘겉옷’의 묘사는 이전 사건(삼상 15:28)과의 문학적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 존재를 사탄의 속임수나 환영으로 해석하면 율법과의 충돌은 피할 수 있으나 또 다른 논리적 모순에 직면합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메시지는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예언했습니다. 사탄이나 환영이 미래를 이토록 정확히 맞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할 수 있다면, 이는 오히려 악한 영에게 신성한 예지력을 부여하는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할 열쇠는 결국 성경 본문 자체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정체를 밝히는데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왜 이 비정상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하는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금지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패역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무엘을 세워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순간에 들려온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는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절망만 할 뿐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 본문은 결국 사울의 몰락이 제도의 문제가 아닌 그의 완악함에 있었음을 고발합니다.

결국 사무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본질을 가릴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인간의 잘못된 의도와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그분의 주권과 그 거대한 경고 앞에서도 끝내 마음을 닫아버린 인간의 비극을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단순히 지식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본문이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겸손히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해석을 요구하며, 그 해석의 최종 지향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 행정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한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6 팩스 (031)421-9411 이메일 yullin@yullin.org 홈페이지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6로 제보 바랍니다.

📖 본문과 오늘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권세가 되다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시편 8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게 하며,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이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권세를 맡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삶의 방향과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시편 8편은 히브리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클루지오(inclusio, 흔히 ‘박스 구조’라고도 부름)로 기록된 시입니다. 이 구조는 같은 고백을 시의 처음과 끝에 배치해 전체 내용을 하나의 틀로 감싸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단계적으로 담아냅니다.

첫 번째 박스: 능력 있는 이름

시편 8편의 가장 바깥 박스는 1절과 9절입니다. 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똑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시편 8편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과 능력을 찬양하는 시임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로 번역된 표현은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위대하다’, ‘권능이 있다’, ‘강력하다’에 가깝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실제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사람에게도 이름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도 이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며, ‘여호와 닛시’는 인생의 싸움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이름이 능력 있고 위대하며 강하여 우리의 인

생을 붙드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의 첫 번째 박스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의 대상일 뿐 아니라,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박스: 권능에서 권세로

두 번째 박스인 1절 후반부와 2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원어 직역: 주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세우셨나이다)라는 고백은 해와 달과 별 같은 광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은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약한 자의 고백을 통해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주의 손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은
연약한 입술에서 드러나고,
그 권능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신 은혜,
주의 이름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는지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힘과 무기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사용하여 대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6~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자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이 말하는 두 번째 박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박스: 기억하고 돌보시는 사랑

세 번째 박스는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의 권세가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 줍니다. 그 답은 사람

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3~4절에서 시인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창조주의 위대한 권능을 목상하다가, 다시 자신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찾아와 돌보시나이까”(원어 직역).

이 고백은 인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친히 찾아오심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입니다. 특히 “기억하신다”, “찾아와 돌보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시인은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합니다. 티끌처럼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기억과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세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을 실제적인 행함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하나님’으로도, ‘천사’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어느 번역을 따르든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씀은 왕의 대관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화와 존귀를 입혀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권세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교만을 막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 세우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의 깊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찾아와 돌보시나이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권세로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맺음말

이제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고백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무력감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 때, 하늘의 권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처음의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한여름밤의특별금요기도회 취재

영적 각성을 기대하며

요나의 고통이 와닿은 여름-

‘살인적인 더위’-올여름 날씨를 표현한 뉴스가 과장이 아니었다. 니느웨(현재 이라크 북부)의 덥고 강렬한 햇볕 속에서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 요나의 혼미했던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위협적인 날씨였다. 날씨뿐이겠는가! 타인의 눈에는 챗바퀴 도는 듯한 평이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각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하루의 무게는 묵직하다. 인간 실존의 무게에 더위까지 가중되어 더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8월에, ‘한여름밤의 특별금요기도회’가 열렸다.

영적 각성을 기대하며-

말씀이 동반된 깊은 기도와 영적 각성의 긴밀한 상관성은 세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르네상스가 저물어 가던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17세기 청교도 운동,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 이후 20세기 초 웨일스 부흥과 우리나라의 평양대부흥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21세기는 어떠한가? 말씀에 대한 접근성은 각양매체로 인해 용이해졌지만, 영적 각성을 기대하기에는 오히려 혼돈의 시대인 것 같다. 감사하게도 열린교회에서는 온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고, 주일에 집중하여 강해 설교를 들으며, 더하여 강사들을 초빙하여 특별금요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영적 각성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말씀과 기도-

8월 한여름밤의 금요기도회는 합동신학대학원의 권호

청년부수련회 후기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저는 어릴 때부터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6년 전, 열린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졌고, 점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목사님의 전도서 강해 말씀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움켜쥐고 있던 욕심과 교만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세상의 것들이 비워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 훈련의 시간을 지나 지금은 목양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늘 한결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를 앞둔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말은 사역과 섬김을 하나의 업무처럼 여기고 있었고, 직장 업무까지 겹치면서 수련회를 통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전 3주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2국에서 매주 평일 저녁마다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없었던 수련회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음



교수님이 문을 열었다. 요한복음 3장 9~10절로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이다. 한밤에 소심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니고데모에 대한 것이다. 이후 성경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변화에 대해 주목해 보는 시간이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묵묵한 기도와 눈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나에게 맡겨진 이를 향해 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한 걸음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금요일에는 정윤교회의 유성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다. 열왕기상 12장 31~33절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혼탁한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부르신 소명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렸던 늙은 선지자 이야기이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나 세상에 동화되어 정체성이 오락가락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키길 원하셨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세상은 절대 만만치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소명은 안녕한가요?”라고 물으며, 소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기도회 강사는 금광교회의 김영삼 목사님이였다.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을 본문으로 ‘장애물 뛰어넘기’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다. 바울은 성경의 단 한 군데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 기도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받은 후 기도를 멈추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전하여짐이라”이다.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떠돌며 살았던 목사님은 ‘부모 없음’이라는 장애물을 안고 살았다. 자

녀를 키우던 중, ‘자신이 아버지의 모델을 못 봤으니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콤플렉스를 갖게 되었다. 김 목사님의 고민에 대한 친구의 말은 그의 고민을 멈추게 하였다. “넌 일그러진 아버지를 아예 경험 안 했어. 너는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만 경험했잖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하냐며 환하게 웃는 김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의 강사는 주마음교회 정진명 목사님이였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본문으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죄로 인해 굳어지고 마비된 인간의 감각이 깨어나는 사건이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언어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작은 모임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니느웨의 뜨거운 햇볕 아래 시들어 가는 박넝쿨을 바라보며 혼미해했던 요나의 모습이 유난히 와닿았던 올여름, 우리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한계를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그 무더운 여름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여름의 열기는 지나가겠지만, 그 밤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과 기도가 일상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이세린 청년부
tpfisd143@naver.com



성을 듣고 싶은 갈급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련회가 되게 하주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와 함께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박요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를 시작으로, 주종훈 교수님의 저녁 집회와 고상섭 목사님의 오전 특강을 통해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집회에서는 ‘주의 길을 걷는 유익과 과제’(눅 9:57~62)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일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특강 ‘복음과 정체성(고후 4:7~11)’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과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비교하며, 복음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시선을 건강한 자아로 변화시키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지금 내 삶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녁 집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앙의 길’(창 2:18~23)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옆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지체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아 눈물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그리고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GBS를 통해 지체들과 ‘복음 중심의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2박 3일 동안 제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해주신 많은 분의 손길에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제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주변에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 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

라오스아웃리치 후기

기대를 넘어 은혜로 채워진 라오스 아웃리치

20년 전, 20대 청년이던 저는 처음으로 중국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제게 남은 것은 은혜보다 상처였습니다. 단기선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며 힘들어했습니다. 그 후로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닫힌 마음을 다시 두드리셨습니다. 특히 욕기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잔잔히 새겨졌습니다. 20대에 겪은 어려움은 단기선교와는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던 어느 주일, 아웃리치 광고를 보는 순간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곱 살 아들 이엘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보던 중 라오스팀과 연결되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사진 촬영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덕분에 사역 현장을 두루 지켜볼 수 있었고, 오랜 시간 기도도 준비해 오신 흔적을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그 수고 위에 맺혀 있는 열매 앞에서 여러 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4년째 라오스를 방문하며 김조이·안드레 선교사님과 협력해 온 팀은, 그 땅에 정말 필

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장년 팀과 청소년 팀으로 나누어 사역했습니다. 장년 사역 중 하나는 교사 강습회였습니다. 라오스 38개 교회에서 150여 명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틀 동안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찬양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그들의 눈빛 앞에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뒤 주일에는 교사 강습회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사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이틀간의 장애인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조정훈 장년4교구
joyer0608@naver.com



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엘아, 놀이동산이나 키즈카페에서 노는 게 좋아, 아니면 우리 라오스팀과 이렇게 장애인센터에 있는 게 좋아?” 아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장애인센터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또 온다고 말해 주자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캐리어를 정리할 때는 “우리 또 라오스갈 건데 왜 짐을 정리해?”, “왜 아웃리치는 1년에 한 번만 가?”하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달라는 모습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사역을 마치고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팀의 나눔을 들으며 그들이 너무나 귀하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 형·누나들처럼 자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라오스 아웃리치는 20여 년 전의 단기선교에 대한 아픔과 오해를 완전히 잊게 하고 회복시켜 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팀에 붙여 주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격하게 하셨던, 정말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

미얀마아웃리치 후기

미얀마에서 만난 ‘산 소망’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매년 해외 아웃리치 일정과 맞지 않아 쉽게 참여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시기가 맞았고, 미얀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한 미얀마 아웃리치였지만, 준비하며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막막함’이었습니다. 리서치 사역을 해야 했지만, 현재 미얀마의 어려운 정세로 인해 정보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려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품고 기도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아대책 미얀마 지부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목사님과 연결해 주시는 등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씩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현지와 소통하며 미얀마를 알아갔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기대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쉼다곤 파고다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상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토록 우상숭배가 깊은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미얀마의 현실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진으로 갈라진 벽,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금세 들어올 것 같은 건물, 돛자리를 깔아 생활하는 공간과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기숙사.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청년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FGOBC 신학교, 이곳에서 그들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매주 자전거를 타고 각 사역지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환대해주며 불러준 합창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한국에서부터 함께 불렀던 찬양이 그곳에서도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들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나마 미얀마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청년들이 미얀마의 소망이었습니다.



신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은 앞으로의 동역을 꿈꾸게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지역 교회 청년들을 위한 교제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갔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같은 복음을 위해 힘을 모을 때 생각보다 훨씬 큰 시너지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미얀마 각지에서 모여 말씀을 배우고 매주 현장으로 나가는 이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받고,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역하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타인의 집에 머물며 주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현지 선교사님

도 만났습니다. 집과 집 사이가 먼 시골에서 사역하기에 이동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게도 필요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 교회를 방문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지금도 미얀마 곳곳에서 사람을 세우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사실 준비 과정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관계와 서로 다른 일의 방식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준비의 시작부터 현장의 모든 순간까지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고백과 감사만 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게 일하시는 동시에 한 사람, 한 만남, 한 순간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낯선 땅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들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미얀마의 교회와 신학생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만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분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

김채연 청년부
rlacodus1023@naver.com



태국아웃리치 후기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통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셨지만, 저는 듣기 싫어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만지셨으며, 마침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나, 인도로 가야겠어!”라고 외칠 만큼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모습에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를 선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작년, 저는 ‘2026년에는 반드시 해외 아웃리치를 가겠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조금씩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길은 제 계획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했고, 눈앞의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마음이 없던 남편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두 아들과 함께 해외 아웃리치 태국팀에 합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김효진 장년4교구
lovelovedh88@naver.com



어른부터 아이까지 14명의 팀원이 한마음으로 모여 매주 기도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라는 기도 제목을 품고 떠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코랏 지역의 투싸왕교회와 캄탈레서교회, 미얀마 난민교회, 던천푸교회에서 현지 성도들과 네 차례 예배를 드리며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함께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과 그들을 품은 목회자들을 통해 가장 아픈 자리에도 소망을 심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교 문화권인 태국 사원 안 유치원의 문이 열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께서 태국에서는 가족 전도가 쉽지 않아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성도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부족한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작은 통로가 되어,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가족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더욱 담대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현지 교역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첫 세미나를 통해 사역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이 나누어지고, 리더들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깨달으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사역자들을 세워 가시는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84세 권사님부터 6살 어린아이까지 서로 다른 달란트가 모여 ‘함께’였기에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제가 알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도 수많은 일꾼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심어왔고, 그들의 기도와 순종이 쌓여 오늘의 태국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전해주려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선물을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는 작은 믿음의 씨앗도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실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며, 이제는 제가 품고 중보기도 해야 할 공동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태국 땅과 그곳의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써 내려가고 계신 그 이야기 속에 저의 작은 기도 한 줄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한 입술로 성실히 교회에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소식



제15차 구약과 묵화의 만남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가 주최한 제15차 ‘구약과 묵화의 만남’이 지난 20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교회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잠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주제로 신학생과 신학에 관심 있는 성도, 열린장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합신대학교 현창학 박사가 개회예배 말씀을 전하였고, 이어 ‘잠언의 설교 방법’을 주제로 한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김성진 담임목사와 총신대학교 김희석 박사, 백석대학교 유선명 박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잠언을 오늘의 묵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2040 수련회

2040 수련회가 8월 16일부터 이틀간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되었다. 만 20세부터 46세까지의 장년교구 가족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장년교구 일부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열린교회 최초의 여름수련회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가정과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강의와 토크쇼를 통해 함께 나누며, 이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집회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고 이웃과 한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되새겼다.

장년부 구역장수련회

장년부 구역장수련회가 8월 29일(토) 본관 3층에서 진행되었다. ‘성경, 창조와 언약으로 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창조와 언약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강의를 전했고, 이어 ‘말씀 비전 나누기’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2회 열린선교대회



주제 함께 세우는 하나님 나라(고전 3:9)

기간 9월 13일(주일)~18일(금)

장소 열린교회 및 외부 현장

일정

13일(주일) 선교사와의 만남·선교지 부스 체험·선교특강 ①

14일(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 방문

15일(화) 선교보고 ①

16일(수) 선교보고 ②·③

17일(목) 선교사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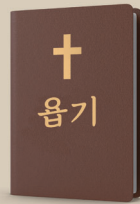
18일(금) 선교특강 ②·선교사 파송 및 축복

선교특강 강사

조은아 교수(고든-콘웰 신학대학원 선교학·GCI 학장)

추천도서

성경 『욥기』



성경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욥기』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욥은 친구들과의 긴 논쟁과 하나님을 향한 절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단순히 설명해 주기보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 주일예배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욥기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욥기 전체를 천천히 정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해와 질문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편집부)

제3회 열린신학세미나

주제 갈라디아서 산책

강사 조호형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신학)

일시 9월 21일(월)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본관3층 예배실

대상 목회자·신학생·일반 성도(선착순 200명)

등록 9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신청

청소년수련회(1국) 후기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요

이번 수련회의 모든 게 다 정말 좋았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나 셀레브레이션도 즐거웠고 특히 토크쇼가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점은 소문수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지루할 틈 없이 설교를 이끌어 주셔서 이를 내내 긴 시간 설교 듣는데도 하나도 졸지 않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주로 기억에 남은 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매번 이뤄 주시는 건 아니더라도 항상 곁에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자고요. 목사님의 이튿날 설교 후반에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염려라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걸 기도라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저는 되게 염려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동시에 주께서 내 부족함을 모두 채우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요. 졸곤 졸지 않고 듣고 있었지만, 그때 확 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말씀하시는 게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째 날 기도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은 이유 없이 기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꼭 주

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받는데 주님을 만나 기쁜 게 이유가 느껴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늘 수련회에 올 때면 내가 순간의 분위기에 은혜받은 것 같다고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의심과 걱정이 되었었는데, 지금껏과는 확연히 다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은 꾸며내지 않아도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셀레브레이션에도 몸이 피곤한데도 계속 뛰고 찬양하고픈 마음이 들어 열심히 함께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동시에 주

의 자녀인 삶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세상에 물들어,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다 보면 답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와 연관해서도 떠올려 보자면, 이번 수련회 주제가 ‘Arise,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이었죠. 세상은 죄로 어두워져 있으니,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련회여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나 각종 취미에도 집중이 안 되고 자주 멍해져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님과와의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제 영혼이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은혜받으며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 앞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다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하는 등 노력해야겠습니다. ☆



김혜민 중2



청소년수련회(2국) 후기

하나님 안에서 찾은 나의 가치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큰 은혜와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수련회였다. 수련회 설교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소문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셨던 것이었다. 그리고 평소에는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믿음이었지만, 이번 수련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믿게 되었다.

또한 영원한 가치는 성경에 있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큰 힘이 되었다.

또 폐회예배에서 김민성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는 것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였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도 설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

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외모나 인간관계 같은 것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도 하셨다. 사실 나도 그동안 나의 외모와 친구 관계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예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고, 내 장점보다는 단점과 부족한 점만 보려고 했던 것 같다. 또 친구 관계에서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탓하였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를 나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게 주어진 나의 모습과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나보다 잘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과 믿음을 더 단단하게 가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와도 혼자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 내가 자신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찾으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김예은 고1



손에는 사랑을 들고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참여하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 ☆

새가족

장년

이아림(85) 고려진(58)
장인태(82) 백지은(82)
하승문(60) 김지현(85)
왕윤정(87) 정호성(87)
박종민(97) 라지선(85)
전소영(95) 윤태영(93)
하범수(96) 김주리(94)

청년

김현서(02) 김동균(95)
김연서(04) 이가영(93)
국태경(07) 이선화(93)
김영진(95) 김신혜(91)
강수민(00) 윤기혜(86)
김재형(96) 서지혜(86)
신화수(97)

주요사역

4일(금) 백향목 개강
5일(토) 중직자 기도회
5일(토)~19일(토) 예비 부모학교(3주)/일대일양육교사학교
6일(주일) 성찬식/전도회 정기 모임
7일(월) 서초시찰회/안양교도소 자매결연모임
8일(화) RTS 가을노회
12일(토)~11월28일(토) 구약아카데미(10주)
12일(토)~12월5일(토) 교리반(11주)
13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13일(주일)~18일(금) 열린선교대회
19일(토) 부모기도회/전문인 특강(‘인지노화와 치매이해’)
19일(토)~10월31일(토) 학습·세례교육 및 문답(5주)
20일(주일) 외국인부 친구초청의날
21일(월) 열린신학세미나
27일(주일) 정기당회

청소년수련회(3국) 후기

내 인생의 집필자는 하나님



박서원 고2



저는 이번 여름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찬양팀으로 섬겨왔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게 수련회 첫째 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분명 저녁 집회 때 한 번도 좋지 않았는데도 말씀이 와닿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성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에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위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십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출 때 기쁨이 배가 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 둘째 날 저녁 집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소문수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셨던 여러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분들이 외국에서 어렵게 지낼 때 조금은 부족해 보였지만 식량이 있었던 것, 자녀분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던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회복할 수 있게 된 상황들 등등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덧붙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기도와 간절함을 들으시고 채워주심은 언제나 신실하게 행해지고 있다. 설령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날 채워주신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았는지 생각났습니다. 분명 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여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항상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실제로 이겨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제가 확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다”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뤄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집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으로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곰곰이 생각

섬기지 않고 사랑하기?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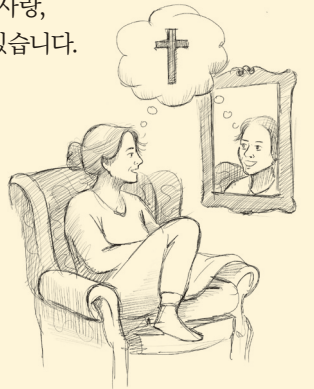
사랑 없이도
젖을 물릴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도
젖을 물리지 않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비는 맞아도 젖지는 않겠다”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섬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기보다,
자기 편안함을 위한 사랑,
곧 '자기사랑'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갈라디아서 5장 13절)

새공과 소개『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날 교회는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혼란과 내적·외적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우리는 교회입니다』는 교회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밝히고,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을 제시합니다.

1장은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저자는 50년 전 독일 교회에서 나타났던 여섯 가지 쇠퇴의 징조(예배 인원 감소, 미디어 예배 확산, 예배의 공연화와 정치화 등)를 하나씩 짚어가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와 겹쳐 보입니다. 이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지켜냈던 예배의 원칙들을 되짚으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2장은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낮아져 섬기는 종의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

듯이 섬김은 결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붙어만 있으면 짐이 되지만, 섬기면 교회의 힘이 됩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풀어내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장은 선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채우시고 흠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실 때도, 초대교회를 일으킬 때도 그 전략은 한결같았습니다. 교회는 사람과 재정과 재능이 모이는 곳이지만, 결국 그 모임의 목적은 흠여짐에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장이 말하는 선교의 본질입니다.

본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회복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구역에서 함께 이 책을 공부하며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신앙과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유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

(목양사역위원회)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신혼 때 잠시 교회를 다니셨지만, 구역모임 중 집에 도둑이 드는 사건을 겪으셨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귀중품은 모두 사라졌으며, 범인은 군 제대 후 방황하던 구역 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부모님은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무교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공장 설립을 준비하던 중 회사를 맡고 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어 회사 대표를 맡았지만, 또다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저는 3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인생은 오랫동안 회색빛이었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일했고, 육아와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아이의 새 학용품 하나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할 만큼 형편은 어려웠고, 독촉장과 빚 독촉 전화 속에서 늘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통장이 압류될까, 혹시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 아이를 재워 놓고 혼자 울던 날도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절망 끝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삶 속에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친구 어머니 두 분이었습니다. 형편이 특별히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늘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분이 다니던 열린교회에 제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12월 5일, 처음 열린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추리소설 듯들여보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던 교회는 따뜻했고, 말씀은 놀라울 만큼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교육과 성장반을 거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 질문들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삶은 이렇게 힘든가?”, “왜 인간은 끝없이 불안한가?”, “왜 내 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한가?”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으며 “이걸 어떻게 믿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항상 읽었고 의무감으로라도 기도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던 2023년 1월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까...’ 그렇게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강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한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날 목사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늘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에 위로가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0억 원의 해외 채무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업체든, 은행이든, 아버지든, 저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외 업체가 있던 나라의 은행에 IMF 자금이 지원되었고, 그 기금으로 은행 채무가 상환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연한 일을 하나님께 억지로 연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현실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이후 일을 시작해 예상보다 큰돈을 모았지만, 빚을 모두 갚기에는 부족했고 모은 돈마저 압류될까 봐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2025년 11월 2일,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으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잠언 6장 1-3절,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할 만큼 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은행에 연락해 모아 둔 돈으로 감액 조정을 요청했고, 기적처럼 남아 있던 모든 빚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 삶을 한순간에 바꾸신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끝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제가 죄인임을 알지만,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제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희 김남근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김요셉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이 찬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순이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파송선교사

A국: 1 unit / B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직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영아부실)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사랑부실)
외국인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 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테마학교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사랑부실)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영아부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살아 계심을 보여줍니다.